

■ KAA NEWS

은행광고심의 은행 연합회 자율심의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맡아왔던 은행광고심의 업무가 올해 1월부터 은행연합회로 넘어간다. 따라서 은행들의 허위, 과장광고, 비방광고, 부당 비교광고 등에 관한 시정요구나 제재는 앞으로 은행 연합회가 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운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쇄신방안의 하나로 그 동안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지도해온 은행 광고심의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인 은행연합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기회 선정 2000년 광고계 10대 뉴스

광고관련 기자와 광고회사 홍보담당자들로 구성된 광기회가 '2000 광고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발표된 내용은 1)2000년 광고시장 5조 7천억원으로 양적 최대규모 기록 2)민영 미디어랩 설립(안) 논의 3)국내 광고시장 외국계 자본 투자급증 4)중간광고 허용방침 백지화 5)방송광고 사전심의 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위탁 6)인터넷광고 효용성 문제제기 7)크리에이티브의 새로운 경향 대두 8)한국 디지털 위성방송(KDB)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 9)닷컴기업 2000년 광고시장 성장 주도 10)오리콤 광고업계 최초 코스닥시장 등록 등이다.

SK텔레콤, 2000년 최우수 광고로 선정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인쇄매체 광고에서 SK텔레콤의 '사람과 사람사이'편을 「2000 광고심의기구가 뽑은 최우수광고」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광고의 진실성, 공공성, 윤리성, 창의성이었다.

우수광고로는 포스코의 '철이 없다면'편과 동양제과의 '열린교실'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2일 조선호텔에서

「2000광고심의 평가회의」와 함께 개최되었다.

LG전자 고화질 HD PVR 개발

LG전자는 디지털 방송을 고선명화질(HD)로 녹화,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수신용 셋톱박스(HD PV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PVR은 VCR과 비슷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버(HDD)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테이프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동서식품 캔 맥스웰 하우스 '캠퍼스'편 새광고

동서식품은 인기드라마 주인공 송승헌을 캐스팅해 Young Refresh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하

고 있는 캔 맥스웰하우스의 새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에서는 캠퍼스커플의 만남과 사랑, 군입대로 인한 이별, 재회, 졸업까지의 일상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보여준다. 이 모든 시간 안에 맥스웰하우스가 함께 있었고, 그래서 '젊은층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커피'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물 수준 향상

인터넷 기업가치 평가 및 컨설팅 전문업체인 비즈아이닷컴이 전국의 소비자 2천2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쇼핑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물 서비스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가 향상됐다는 대답을 했으며, 주요 요인은 쇼핑사이트 증가, 사이트 이용의 편리성, 정확한 배송 등으로 나타났다. 쇼핑물 재방문의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때문(50.8%)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비타민C 첨가한 음료 선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소비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음료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원액비율 81%이상, 비타민C를 첨가한 음료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능성 음료 선호도에서는 10~30대는 비타민C, 40대는 섬유소, 50대 이상은 소화효소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Media & Consumer Research 보고서 발간

한국 방송광고공사가 2000년 매체 및 제품이용행태 조사(Media & Consumer Research)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00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대 도시와 41개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6,000명(13세 이상 59세 이하)을 대상으로 일기식 유치조사와 설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2000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 표현의 차별화, 무거움의 해체, 현실의 행복추구, 건강한 삶 지향, 인터넷의 생활화 등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사옥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금호빌딩
전화: 02-6303-8250

대흥기획 사옥이전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7-9층
전화: 02-3671-6114